

한나라 '魔의 10%' 벽 넘었다

광주·전남 지지도 13.3%...19년만에 첫 돌파

광주일보·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조사'

민주 31.4% 우리 16.9% 민노 7.9%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가 '마(魔)의 10%' 벽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에서 두 자릿수 지지를 획득은 지난 198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번째 대선 출마 이후 19년만에 처음으로, 2007년 17대 대선에서 10년만의 정권탈환을 노리고 있는 한나라당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으로 여겨져왔다.

〈관련기사 3면〉

광주일보는 제 1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정해년(丁亥年) 새해를 앞두고 지난 22일 한국갤럽에 의뢰, 광주·전남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606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0%p)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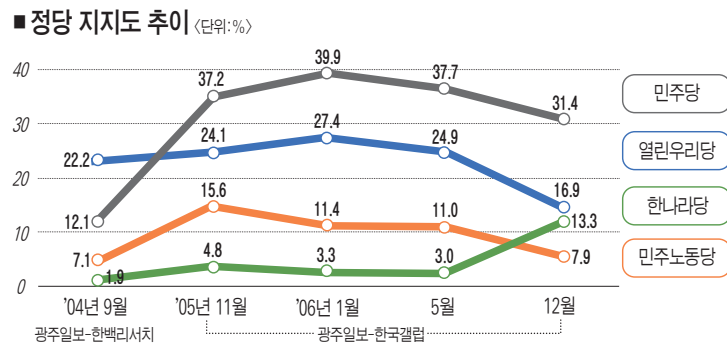
조사 결과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31.4%를 얻어 여전히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6.

9%에 그쳤으며, 한나라당 지지율은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서 13.3%를 기록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를 격차는 불과 3.6%p. 오차범위 이내였다. 민주노동당은 7.9%를 얻었다.

한나라당 지지도는 광주가 14.7%, 전남은 12.3%로 전남보다 광주에서 약간 더 높았다.

한나라당은 지난 1987년 대통령선거와 1988년 제 13대 총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황색 돌풍'이 몰아친 이후 지난 5·31 지방선거까지 광주·전남에서 한 자릿수의 미미한 지지율을 면치 못했다.

광주일보와 KBC, 한국갤럽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05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7회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3.0~4.8%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한나라당은 7차례 조사에서 단 한번도 민주노동당 지지율조차 뛰어넘지 못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는 4~5%대의 정당득표율을 기록, 광주·전남 지역 410개의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의석 중 단 한 자라도 건지지 못했다.

이같은 지지를 변화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의 측면이 강하다. 정부와 여당은 유력 대선 후보조차 내지 못한 채 레임덕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전국적으로 40%를 넘는 당 지지도와 유력 후보군을 바탕으로 '대

세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 지도부와 대선 후보 '빅3'의 지속적인 호남 구애 행렬도 민심을 움직이는데 한 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호남개안기' 진정성과 당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광주 해방구'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용갑 의원에 대한 징계 유보 등은 지역민들에게 또 다시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한나라당이 두 자릿수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지 주목되는 이유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한국 최초 우주인 후보에 최종 선발된 이소연(28·왼쪽)·고산(30)씨의 우주복 입은 모습이 아름답다. 이들은 오는 2008년 4월 러시아 우주왕복선 소유즈호에 탑승, 무중력 실험 등 18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연합뉴스

한국 첫 우주인 후보 2명 탄생

이소연·고산씨

(광주 출신)

경쟁률 18,000대1...2008년 4월 우주로

오는 2008년 4월 우주 비행에 나선 '한국 최초의 우주인'으로 광주 출신인 이소연(28·한국과학기술원 석사과정, 원 박사과정)씨와 고산(30·삼성종합기술원 연구원)씨 등 남녀 1명씩 2명이 최종 확정됐다.

〈관련기사 3면〉

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25일 서울 등촌동 SBS공개홀에서 우주인 후보 6명을 대상으로 대중친화력 평가를 실시한 뒤 그동안의 4차례 평가 결과를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 선발에는 우주인으로 선발된 이씨와 고씨 외에도 이진

영(36·공군 소령 관대장), 박지영(23·여·한국과학기술원 석사과정), 윤석오(29·한양대 교직원), 장준성(25·부천 남부경찰서 경위)씨 등 남성 4명과 여성 2명 모두 6명의 후보가 참여했다.

우주인 후보가 남녀로 1명씩 선정됨에 따라 1장의 우주행 티켓을 놓고 성 대결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으며 한국 최초의 우주인에 여성 우주인이 탄생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광주 출신인 이소연씨는 광주과학기술원을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에서 기계공학과를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현재 박사과정

을 밟고 있다. 고산씨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종합기술원 인공지능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가량 진행된 우주인 후보 공모에 참여, 3만6천206명의 지원자 중에서 약 4개월 동안 4단계 선발과정을 거쳐 1만8천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

두 후보는 내년 3월부터 1년간 러시아가 가가린 우주인훈련센터에서 본격적인 우주인 훈련을 받게 된다. 우주인 훈련에서 성적이 좋은 1명이 2008년 4월 러시아 우주왕복선 소유즈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착, 8일 가량 각종 과학실험을 수행한 뒤 지구로 귀환한다. /김지웅기자 dok2000@

“민간아파트도 5~10년 전매제한”

건교부, 내년 9월 '분양가 상한제'와 병행 검토

정부와 여당이 내년 9월부터 민간택지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맞춰 전매제한을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내년 분양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민간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5~10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가격이나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는 지방분양시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향후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전매제한 도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낮은 가격의 아파트가 공급될 경우 그만큼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양도차익도 커지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25.7평 초과는 5년, 25.7평 이하는 10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선 내년 한 해는 청약시장에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분양가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에 미룰 가능성이 높은 데다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 인가지역의 경우 미분양 적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건설업계도 초비상이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올해 공급실적이 연초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내년엔 분양가 상한제까지 결합 경우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전매제한을 하지 않고 바로 처분한다면 양도차익이 지금보다 커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동원대학교 동학 50년 역사비전

남부대학교
http://www.nmsu.ac.kr

세명대학교
http://www.semyung.ac.kr

ALL LASH MASCARA

LANEIGE

LANEIGE

한글서체

LANEIGE